10월 출생아 2만5천648명 역대 최소 기록

인구감소 '초읽기'…43개월 연속 최소
자연증가분 128명…"곧 감소로 갈듯"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쳐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천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천9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역시 10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였다. 10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0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10명(2.0%) 늘어난 2만5천520명이었다. 이는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명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자연증가분은 128명에 불과해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라면서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는 곧 감소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0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2만331건으로 1년 전보다 1천525건(7.0%) 줄었다. 추석 연휴가 9일로 길었던 2017년(1만7천348건)을 제외하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다.

이혼 건수는 9천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3건(6.5%) 줄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 이상 증가

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동일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춰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천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지난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천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천억원 늘어난 75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천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쥐의 해 기념 '2020년 달력접시'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도자기 사옥에서 직원들이 역대 한국도자기 달력접시와 2020년 경자년 '하얀 쥐' 달력접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 많이 가입' 유형 월보험료 129만원

실속파보다 13배 많아

보험을 골고루 많이 가입하는 소비자가 실속 위주로 드는 이들보다 보험료를 13배나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19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분석한 '보험가입 패턴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형 분류'란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이는 전체 성인 인구의 20%로 추정되며,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를 '골고루 많이(14%)', '보장성 보험 선호(14%)', '노후대비 저축(12%)',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 위주(10%)', '상해에 대비(16%)', '질병에 대비(15%)', '실속 위주 최소한의 보장(19%)'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중 골고루 많이 유형은 누적 보험계약 건수가 22.4개이고, 월납 보험료가 129만9천원에 달했다.

실속 위주 최소한의 보장형이 한달에 내는 보험료(9만4천원)보다 13배나 많았다.

실속 위주의 최소한의 보장형은 주로 저축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했고, 누적 계약 건수는 2.1개에 그쳤다.

보장성보험 선호형과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 위주형은 평균 월납보험료가 43만1천원, 37만5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선호하는 보험 종류가 달라 성향에 따른 개인화된 마케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신용정보원은 풀이했다.

/연합뉴스

대학생 취업 선호 1위 삼성전자…2위 대한항공

잡코리아 '고용 브랜드' 조사…성별·계열별 선호 기업 달라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로는 대한항공, 3위는 CJ제일제당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생(재학·휴학생) 총 1천59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100대 기업 고용 브랜드' 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 선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10.6%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7.6%)이 2위, CJ제일제당(6.7%) 3위, 한국전력공사(5.9%) 4위가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이마트는 각각 5.1%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이외에 신한은행(4.8%), 기아자동차(4.5%), 아시아나항공(4.4%), SK하이닉스(4.3%)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잡코리아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2004년부터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CJ제일제당이 잠시 1위에 올랐었으나 2017년부터 다시 3년 연속 삼성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성별과 전공 계열별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삼성전자(14.2%)를 가장 선호했고, 한국전력공사(7.2%), SK하이닉스(7.2%), 대한항공(6.8%), 삼성물산(6.6%) 순이었다.

여학생들에게는 CJ제일제당(9.4%)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8.4%), 삼성전자(7.7%), 아시아나항공(6.1%), 이마트(5.5%) 호텔롯데(5.1%) 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꼽았다. 이공계열 전공자들은 5명 중 1명꼴인 19.4%가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했다.

경상계열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신한은행(9.4%)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에게는 대한항공(8.8%)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대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높은 연봉'을 꼽았다. 복지제도·근무환경(23.8%), 기업 대표의 이미지(21.7%) 등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투데이 경제

중흥건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중흥건설그룹은 26일 중흥건설그룹 정창선 회장이 '희망 2020나눔캠페인'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순천시청을 방문해 허석 순천시장과 티타임을 갖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1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5천만원을 기탁해 총 1억원을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박은성 기자

중기지방청 '크리스마스 마켓' 성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지난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에서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in 광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치삽시다'의 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모두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자 기획됐다.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의 장인 '플리마켓' 행사에는 2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했으며,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향초, 마카롱 등의 아기자기한 제품과 가족들과 함께 먹기 좋은 전통시장 먹거리로 구성됐다.

/임후성 기자

한은 광주전남본부, 복지시설 성금 전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에 소재한 '나사렛 집', '성심의 집'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정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주위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더 필요하다"며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직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성심의 집'을 매월 방문,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과 성금 전달 등을 통해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임후성 기자

[원룸,빌라,주상복합부지]
1) 오치동 2종주거 6미터 대302㎡ 급매5억 (3.3㎡당549)
2) 두암동 2종주거 8미터 대281㎡ 급매4억 (당470)
3) 북동 중심상업 4미터 806㎡ 급매12억2,000 (당500)

[다용도 토지]
1) 하남산단 공업지 10미터코너 8,265㎡(3.3㎡당200)
2) 화순 의료단지옆 전원단지조성지661㎡(3.3㎡당 45만원)
3) 지원동(월남)도접 주거1종 3,222㎡(3.3㎡당 350만원)
4) 장성,산정리 도접 주거1종외9,900㎡(3.3㎡당 40만원)
5) 신가동 도접 주거1종7,000㎡(3.3㎡당 250만원)

[월세많은 빌딩]
광주역앞 병원상업지838㎡5층건물 승강기2,주차20
급매24억3,000(보1억 월1,800만원)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급매 전문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370-1900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